

미, 한반도에 아파치 공격헬기 -포병 본부 상시 주둔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사진=mirror.co.uk

미국 국방부가 그동안 한반도에 순환 배치했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시켜서 중국·북한 위협에 대응한다.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에도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지난 3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전 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주둔 미군병력 태세검토회(GPR)를 마치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환배치 부대였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차원의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서 아파치 공격헬기를 한국에 최근 배치했고,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제 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를 지난 9월 한국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해 주둔시키는 등의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국가 안보 전략 수립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며 주한미군 병력 유지 입장을 전했다.

또한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순수 한국산 자주포 K-9, 중동·아프리카 진출 임박



▲ K-9 자주포. 사진= hanwha-defense.co.kr

순수 한국산 기술로 개발된 K-9 자주포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타진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 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한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 2021)에서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수출이 성사되면 K9 자주포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대 수출이 예정된 천궁II(지대공미사일 요격체계)처럼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제2의 천궁'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K-9은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며 48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 있다. 1분당 6~8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등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 등에 압도적 성능을 자랑한다.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이 뛰어나 명품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K-9 자주포는 터키와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문을 수출한데 이어 이어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지리적 위치는 아프리카지만 아랍어를 사용해 중동권으로도 분류되는 이집트 판로 개척은 아프리카와 중동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아직 한국산 무기체계는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군사 대국 이집트 진출이 성공되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판매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수출 역대 최고 기록 달성

한국의 올해 11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선박 등 주력 품목을 포함한 전 산업군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 규모 달성도 확실시된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1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역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 9월(559억 2,000만 달러) 기록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월간 수출액은 2013년 10월 처음 500억달러를 달성한 후로 8년 1개월 만에 600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 규모 달성도 가시화됐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5,838억 달러, 무역액은 1조1,375억 달러로 이미 동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연간 기준 무역액 최고치(2018년의 1조1,401억 달러) 기록까지도 26억 달러만 남겨 놓았다.

주요 9개 지역별 수출도 8개월 연속 모두 증가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대 중국 수출이 사상 첫 150억달러,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첫 100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